

KOREA UNIVERSITY

Global KU
Frontier Spirit

고대법대소식

제 54호
2009. 5

www.korealawschool.com



본실무학회 제4 회 정기연구발표회

海松法學圖書館
H. S. Law School Library



민족혼과 개척정신을 담은 세계선도대학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대교우회장 취임사

㉸ 취임사 ㉸



법대 교우회 회장
주 선 회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학과 65학번 주선회입니다.

우선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법대 교우회 회장으로 일하게 해주신 선배, 동료, 후배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평소 교우회와 모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시다만, 실제 활동면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 하지 못하고, 크게 기여하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교우회 회장으로 일하게 해주신 것은 그 동안의 소극적인 참여와 활동에 대한 따끔한 채찍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2년 동안 여러분의 심부름꾼이 되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역대 회장님들과 교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교우회 활동은 완전히 제자리를 잡았고, 기금도 교우회 활동에 지장이 없을 만큼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함에 따라 우리 교우회에서도 이미 약정한 상당액의 기부금을 모아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은 그 출범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또, 금년부터는 법과대학이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학문으로서의 법학을 연구하는 기능이 많이 약화되어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앞으로 여러 교우님들, 그리고 모교와 폭넓은 의논과 협의를 거쳐 원만한

해결책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교우회는 회장 한 사람이나 회장단만의 노력으로 활성화되는 조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을 때에만 교우회가 활성화 되고,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교우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금년에도 교우 여러분께서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 5

제8대 법대교우회장 주 선 회

법대소식

◆ 법대 소식 ◆

● 신규임용 교수

2009학년도 전기 법과대학 · 법학전문대학원
신규임용 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김인현 교수



전공분야 : 상법, 해상법
학위수여대학 : 고려대학교
연구실 : 법학관 신관 304호
전화번호 : 02-3290-2885
E-mail : captainihkim@korea.ac.kr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공학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석사, 박사

University of Texas(Austin)(LLM)
일본 산코기센(三光汽船) 1등 항해사 및 선장(Captain)
김&장 법률사무소 해상팀 선장(해사자문역)
국립 목포해양대학교 부교수, 학부장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현) 갑종 선장(1급항해사) 면허 보유
현) 유엔 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운송법회의 한국
대표단

신호영 교수



전공분야 : 세법실무
학위수여대학 : Univ. of Washington
연구실 : 법학관 신관 302호
전화번호 : 02-3290-2886
E-mail : hoyoungshin@korea.ac.kr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

Univ. of Washington, LL.M in Taxation
한양대학교 박사과정(조세법) 수료
37회 사법시험, 39회 행정고시 합격
변호사(한국, New York)
사법연수원 수료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해운대 제주 종로 강서
세무서 사무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희정 교수



전공분야 : 행정법
연구실 : 법학관 신관 330호
전화번호 : 02-3290-2884
E-mail : huenym@korea.ac.kr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미국 New York 州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BK21사업단 박사후연구원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 교수 동정

정동운 명예교수

2009년 4월 2일 목요일 (주)부영, 상임감사에
정동운 명예교수가 선임됐다. 정동운 교수는 올해
만 70세로 서울지방법원과 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무부 자문위원을 역임했으
며 현재 공정위약관 심사자문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일수 교수

2008년 11월 28일 한국보호관찰학회 추계학술
대회에서 “성폭력범죄-체계적 자리매김과 형사정
책적 과제”라는 제목의 기조강연이 있었고 12월
20일에는 고대 기독교우회 창립 40주년 기념행사
에서 제3회 자랑스러운 고대기독인 상을 수상하
였다. 그리고 2009년 2월 18일에는 통합형사사
법정보체계구축기획단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재
취임하였다. 3월 25일에는 법무부 형소법 개정
특별위원 위원활동을 개시하였다. 그리고 3월 26
일에는 서울변호사 교육문화관 대회의실에서 열
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입법공청회」에서 형
사사법통합정보체계추진자문위원장으로서는 촉사를
하였다. 3월 25일에는 법무부 형소법개정 특별위
원으로 위원회활동을 개시하였다. 그리고 형법총
론 중판을 발간하였다.

박노형 교수

2009년 2월 14일 일본 후쿠오카 소재 규슈대

학교 법과대학에서 개최된 국제세미나에서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다. 2009년 3월 28일 일본 동경 인근 소재 제경대학교에서 개최된 일본지리학회 연례발표회에 동해연구회를 대표하여 참석하였고, 2009년 4월 15일 홍콩 소재 홍콩성시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개최된 국제세미나에서 한국의 법원조정제도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다.

하태훈 교수

하태훈 교수가 고려대학교 교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고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임기는 2009년 3월 1일 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다. 또한 2009년 2월부터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박세민 교수

박세민 교수는 2009년 2월 13일 금요일에 천안 교보생명 연수원에서 개최된 한국보험학회 동계학술발표회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적용범위”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이대희 교수

디지털 방송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이대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강연했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KBI)이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디지털 방송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전략적 접근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박경신 교수

박경신 교수가 창조한국당이 추천하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위원을 맡는다. 2009년 3월 10일 창조한국당은 학자로서 식견과 현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박경신 교수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박경신 교수는 한국과학기술원 법률자문 등을 역임했다.

● 통상법연구센터 주최 Reisman교수 특강

통상법연구센터는 2008년 12월 18일 목요일 신법학관 401호에서 미국 Yale Law School의

Michael Reisman 교수를 초청하여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Policies and Modalities”라는 주제로 강연을 가졌다. 레이스만 교수는 국제투자법 등 국제법 분야에 관한 다수의 저서를 발간한 저명한 학자이며, 주요 국제중재사건에서 중재관으로 활동해 왔다. 이번 강연은 국제투자규범과 국제중재에 관한 권위 있는 교수의 고견을 듣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Global Legal Clinic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설 글로벌리걸클리닉(Global Legal Clinic, 소장 윤남근 교수)은 2009년 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고려대 인문계캠퍼스 동원글로벌리더십홀 2층에서 개소식 및 설명회를 가지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개소식을 시작으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은 학내에서 실습을 수행하는 리걸클리닉 과목인 ‘실습과정 법무지원’을 개설하고 과목에 수반되는 학업과 실무가 이뤄지는 글로벌리걸클리닉을 동원 리더십센터 2층에 마련하여, 글로벌리걸클리닉의 정식운동을 개시하였다. 현재 글로벌리걸클리닉은 △기름유출사고 법률지원 △장애인 차별금지법 준수 및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증진 △외국인 인권관련 활동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개소식은 글로벌리걸클리닉 간사인 박경신 법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이기수 고려대 총장, 김한겸 학생처장, 최홍석 국제처장, 하경효 전 법과대학장, 채이식 법학전문대학원장을 비롯해 윤남근 글로벌리걸클리닉 소장 등 글로벌리걸클리닉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리걸클리닉(Legal Clinic)은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직접 실제 사건을 맡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법률상담소로서 고려대는 지난 2008년 7월 글로벌리걸클리닉을 개설한 후 현재까지 시범운영해 왔다. 2009년 4월 1일 화요일에는 고려대학교 동원글로벌 리더십센터 지하1층 ‘글로벌 리더스 라운지’에서 ‘장애인 차별 금지법 시행 1년,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장

법 대 소식

애인 차별 금지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현재 준수 여부와 조항 자체의 문제점, 향후 과제 등에 대해 활발히 토론해 볼 수 있는 장이 되었다. 박은수 국회의원의 측사가 있었고, 실무에서 직접 활동하는 박종운 변호사 (법무법인 소명)의 발표와 김희선(장애우 권익문제 연구소), 현근식 팀장(장애인 인권포럼)의 토론으로 실무 경험을 통하여 느낀 문제들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장애인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대인들이 많이 참여하였다.

● 고려대 2009년 전기 졸업식

2009년 2월 25일 수요일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제102회 학위수여식이 열렸다. 타 단과대학과 함께 진행된 이번 학위수여식에는 이기수 총장을 비롯해 여러 내빈들과 2만여명의 졸업생, 재학생, 졸업생 가족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번 졸업생은 총 6018명으로, 학사 4천 176명, 석·박사 1천842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이번에 학위를 받은 법과대학의 석사 학위 수여자 및 학위논문은 다음과 같다.

석사학위 취득자 및 학위논문

- 최규환 헌법재판소에 의한 계획 통제
- 이혁 차입매수(LBO) 방식의 M&A에 관한 법적 연구
- 박종준 방송·통신 내용규제에 관한 연구
- 콘텐츠에 대한 수평적 내용규제체계의 적용을 중심으로 -
- 이호원 항공기에 의한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국제법적 규율
- 로마협약체제의 현대화 작업을 중심으로 -
- 양진용 국제통화기금(IMF)의 역할 재정립
- 금융위기의 관리와 예방 -
- 김유진 인터넷상 유통되는 불건전정보에 대한 행정적 규제에 관한 연구
- 이지은 공동주택 분양계약의 법적 문제에 관한

- 연구
- 김학웅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 심영진 저작물 이용과 형사책임 귀속의 정당성
-저작권에 대한 대화이론적 이해를 토대로-
- 오세웅 부당하고 구제신청에서의 구제이익에 관한 연구
- 정성현 선천적 장애아의 출생에 따른 의사의 손해배상책임
-배상의 범위와 내용을 중심으로-
- 정병조 자산유동화에 관한 연구
-장래채권유동화를 중심으로-
- 이진용 파산절차에서의 상계권에 관한 연구
- 김재호 수사절차상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에 관한 연구
- 이혜정 선거운동에 있어서 미디어의 자유
- 황원재 신탁의 기본구조에 관한 연구
- 김희정 역사부정규제법제의 헌법적 정당성
-홀로코스트부정(Holocaust Denial)을 중심으로-
- 김영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홍영표 주식회사 회계규정에 관한 2008년도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재무제표와 배당가능이익을 중심으로-
- 권희정 WTO 반덤핑협정의 우회덤핑규제 도입에 관한 연구
- 이승현 근로시간개념과 구성체계에 관한 연구
- 조철 차입매수(Leveraged Buyouts)에 관한 연구
- 이현택 “Security and Predictability”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 The Contributions of the Appellate Body and the Suggestions for Reform
- 박연규 평시 군사법제도 운영 개선에 관한 연구
-장병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 김민규 특별사법경찰제도의 공법적 고찰
-일반행정기관에의 ‘사법경찰권’ 부여에 관한 법치국가적 타당성 검토-
- 김지원 이미지론의 법적 수용에 관한 연구
- 김일권 사외이사제도에 관한 연구
-사외이사의 독립성 및 효율성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 이성남 보험회사의 업무영역 규제에 관한 연구
- 김소연 외국인 이주노동자 자녀의 교육 받을 권리
- 최지경 지적재산권의 공동소유 관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차경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개인의 재산권 보장에 관한 연구
- Liu Xuan xi 민사사건에 있어서 최고법원의 역할
-중국 최고인민법원을 중심으로-
- Li Guang guo 중국의 기업형태에 관한 연구
- Jin You 덩핑판정 과정에서 제로잉의 위법성에 관한 연구
-반덤핑협정 제 2.4.2조를 중심으로-
- Li Yan Chao 중국증권법상 상장회사의 매수에 관한 연구
- 김정하 UNESCO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협약과 WTO 규범간 조화에 관한 연구
- 김종민 위성측위시스템(SBPS) 관련 법제 및 문제점 연구
-전역위성항법시스템(GNSS) 관련 국제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 강대가 행정행위의 부관과 행정쟁송에 관한 고찰
-신도시 개발사업에 있어서의 부관사례를 중심으로-
- 홍승현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집행에 관한 연구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개원식 및 입학식



2009년 2월 27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 법학관 신관 501호에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개원식 및 입학식이 열렸다. ‘실력과 인격을 겸비

한 신뢰받는 법조인’,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을 알렸다. 개원식 및 2009학년도 입학식에는 현승종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이기수 고려대 총장, 유지담 전 대법관, 이종남 전 법무부장관, 이진강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주선희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참석해 법조인의 꿈을 가진 120명의 신입생들과 함께했다. 총 2부로 진행된 본 행사의 1부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설립경과보고 △축사 △교수소개가 있었으며, 2부에서는 개원기념으로 채이식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의 특강이 진행됐다. 채이식 원장은 고려대 법과대학 재학 중 제 11회 사법시험을 최연소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1기를 차석으로 졸업했으며 현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장직과 함께 대외적으로 UN 국제해사기구(IMO)의 법률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 Roy Hoffinger의 특별강좌

2009년 3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 법학관 신관 401호에서 ‘변호사의 진로와 국제적 법률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한 주제로 Hoffinger 변호사의 특강이 있었다. Hoffinger 변호사는 미국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잘 알려진 독점금지법 변호사로서 주로 IT 기업과 지적재산권 분야를 중심으로 일해왔다. 그리고 Chicago Law School 졸업 후 20여년간 뉴욕 Perkins Coie LLP 등 로펌과 AT&T, IBM 등 글로벌기업에서 근무하였고 현재는 미국 Qualcomm사의 Vice President 겸 Inhouse Counsel로서 Qualcomm사가 관련된 세계의 독점금지법 관련 사건들을 총괄지휘하고 있으며, Colorado University Law School(Boulder)에서 수시로 강의도 하고 있다. 이번 강좌에서는 많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변호사들의 다양한 진로와 일하는 법, 그리고 국제적인 법률서비스의 중요성과 수행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 시간을 갖았다. 학부생들과 각종 대학원 학생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다.

법대소식

● 미국 Law School 및 변호사 제도 특별강좌

2009년 3월 9일 월요일 오후2시 해송 법학도서관 B101호에서 미국 유수 Law School인 Washington Univ. in St. Louis School of Law의 Dean Shoresman 및 Dean Clifford가 동 대학의 JD과정과 LL.M/SJD과정에 대한 특강을 하였다. 법대 학부생들과, 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였다.

● 한국저작권법학회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 개최



2009년 4월 3일 금요일 2시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한국저작권법학회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가 열렸다. 총무이사인 안효질(고려대) 교수의 진행으로 열린 학술대회는 이기수 회장(고려대 총장·교수)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정기총회에서는 이상정(경희대) 교수가 신임 회장으로 뽑혔다. 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는 한국복사전송권협회 주관으로 열렸다. 학술발표시간에는 이대회(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각 분야의 전문가인 교수들의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기준'에 대한 주제와 '어문저작물 전송사용료 기준'에 대한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관심있는 교수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다.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발전 염원 식수행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채이식)은 2009년 4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정의로운 법집행을 선도하는 전문 법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법학전문대학원의 끊임없는 노력과 발전을 염원하는 식수행사를 가졌다. 이날 식수행사에 쓰인 배롱나무, 은행나무, 회화나무는 채이식 법학전문대학원장을 비롯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기증했다. 배롱나무는 법과대학 모든 구성원의 화목과 발전을 상징하며, 은행나무는 아시아 학문의 성장, 회화나무는 공직을 뜻한다. 이날 행사에는 이기수 고려대 총장, 김병철 부총장, 채이식 원장과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참석했다.

● 국제형사재판의 최근 동향 특별강좌



고려대학교 협상연구센터는 2009년 4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30분 해송 법학도서관 학술회의실 B101호에서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의 권오곤 재판관(부소장)을 초청하여 “국제형사재판의 최근

동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마련하였다. 국제형사 재판에 관심이 많은 법대 학부, 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다.

● 한국경영법률학회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 개최



2009년 4월 18일 토요일 1시 고려대학교 해송법학도서관 국제학술회의실 B101호에서 경영법률학회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가 열렸다. 최완진 회장(한국외대 교수)의 개회사로 시작된 학술대회는 총무이사인 이대회(고려대) 교수의 진행으로 정기총회가 진행되었고, 각 분야의 전문가인 교수들의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제1세션은 한철(한남대) 교수의 사회로 ‘녹색경영의 회사법적 검토 -환경정보공시방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와 ‘독일 보험계약법상 철회권에 관한 고찰’과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문제에 대한 법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고, 제2세션은 하삼주(건국대) 교수의 사회로 ‘고령사회에서의 노동법적 과제’라는 주제와 ‘DRM(디지털권리관리)의 의의에 관한 시론적 고찰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의 관점에서-’라는 주제로 이루어졌다. 가장 시사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심도있는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관심있는 교수와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였다.

◆ 법무대학원 소식 ◆

● 2009년 전기 졸업식

2009년 2월 25일에는 일반대학원 및 타 단과대학과 함께 법과대학 법무대학원의 학위 수여식

이 거행됐다. 학위취득자 명단과 학위논문은 다음과 같다.

석사학위 취득자 및 학위논문

- | | |
|-----|---|
| 홍성준 |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규제에 관한 연구
- 은행소유 규제를 중심으로 - |
| 박준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관한 연구 |
| 이범석 | 우리나라 재벌의 경영권 승계과정상의 위법행위에 관한 연구
-물량몰아주기와 주식의 편법증여를 중심으로- |
| 한남규 | 의료소송에서의 인과관계와 판단기준 |
| 조경복 | 의료광고 규제에 관한 연구 |
| 김형율 | 무면허의료행위에 있어서 의료행위의 개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
| 정학성 | 의약품사고에 따른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
| 박지훈 | 군인의 치료를 받을 권리에 대한 법적 연구 |
| 김필수 | 의료단계에 따른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실증적 연구
-의료사고의 유형분류- |
| 정수인 | 건축저작물에 관한 실무상 제 문제 |
| 김석준 |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 대한 연구
-국가대응방안을 중심으로- |
| 추승호 | 캐릭터의 법적보호에 관한 연구 |
| 이미영 | 공개 소프트웨어의 법적 문제에 대한 연구 |
| 김성욱 | 첨단산업기술 유출 방지에 관한 연구 |
| 김홍섭 | 공무원 정년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 손주연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 홍성문 |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조례의 역할과 한계에 관한 연구
-‘인천시의회 조례제정사건’을 중심으로- |
| 노동성 | 도시 공공시설의 설치와 귀속에 관한 법적 연구 |
| 김동욱 | 주민관련분쟁 해결수단으로서의 ADR |

- 활용 및 제도화 방안
- 조성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이해
-국제기구의 역할의 효율성 제고 및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발전방향-
- 김민희 경찰의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법적 연구
- 김현일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 엄인섭 범죄와 환경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청소년 범죄를 중심으로-
- 김희수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이수연 국제표준판매점계약의 법적 검토 및 실무적 활용에 관한 연구
-ICC 표준판매점계약을 중심으로-
- 장두기 국제이전가격 결정에 대한 연구
-사전승인제도 중심으로-
- 이승민 중국회사법상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고찰
- 이현정 공정거래법에서의 동의명령제 도입에 관한 연구
- 양우평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의 규제에 관한 연구
- 김세곤 통합도산법상 개인도산법제에 관한 연구
- 김용진 상가업종제한의 법률효과에 관한 연구
- 김홍기 사업손실보상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평택시 주한미군 재배치계획에 따른 보상을 중심으로-
- 홍진표 채권자취소소송과 그 집행
-여러 채권자의 이해관계의 조정을 중심으로-
- 황정미 개인신용회부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금융소외자를 중심으로-
- 박종희 신탁법에 관한 연구
-부동산신탁을 중심으로-

● 법무대학원 2009학년도 전기 입학식

법무대학원은 2009년 2월 26일 목요일 오후 7시에 법학관 신관 401호에서 2009년도 전기전형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입학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법무대학원장인 채이식 교수를 비롯하여 다수의 법대 교수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 학생 소식 ◆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009년 2월 14일 토요일부터 15일 일요일까지 호텔아카데미하우스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신입생과 교수간의 친교와 학생들 사이의 교류의 장으로 마련된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과 신입생들의 참여로 뜻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 제15기 튜터링 프로그램

본교 법과대학(학장 채이식)의 제15기 튜터링 프로그램이 2009년 3월 23일 월요일 첫모임을 가지고 시작됐다. 이번 튜터링 프로그램은 2009년 6월 12일 금요일까지 총 12주간 진행된다. 튜터링 프로그램은 학습을 보조해 주는 튜터(tutor)와 신청한 튜티(tutee)가 한 팀이 되어 함께 공부하는 학습지원 프로그램으로, 선배들이 여러 시행착오 끝에 얻은 소중한 경험과 지식을 통해, 후배들이 학습의 방향을 잡고 여러 가지 노하우 등을 전수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다. 신청시기는 매학기 초 별도로 공지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재학생 또는 법학과 복수/이중전공자이며, 신청서와 함께 자기소개서 및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튜터링 행정실(법과대 1층 행정조교실내 교우정보센터 02-3290-1297)로 제출하면 된다. 튜터는 사법시험 합격자(우선 선발)이거나 사법시험 재시이상 경험자 중 저학년 학생들에게 법학일반 및 수험생활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는 성실한 법대 학우(졸업, 재학 무관)에

한하여,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튜터링 지도 교수가 직접 선발한다. 튜티는 참가비(2만원)를 내야하며, 이는 차후 우수그룹과 개인에게 장학금으로 사용된다.

◆ 교우회 소식 ◆

□ 2009年度 定期總會 會議 開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우회는 2008년 2월 19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내외빈을 포함한 600여명의 교우가 참석한 가운데 2009년도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를 개최하였다. 국민의례와 이정수(법69) 정기총회 준비위원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송정호 회장 및 이기수 모교 총장(법65)의 인사말이 있었으며, 현승종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천신일(정외61) 모교 교우회장, 하경효(법71) 전 법과대학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그리고 2008년도 결산안 보고 및 승인과 200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에 대하여 결의하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우회 장학금 모금계획안 승인과 임원과 임원 임기 만료에 따른 임원 선임 승인을 결의하였다. 법대 교우회 신입회장으로는 송정호 회장이 2008년 12월 2일과 동년 12월 22일에 개최한 고문 및 자문역과 회장단 회의, 그리고 회장단 및 동기회장, 총무 연석회의에서 더욱 왕성한 활동으로 전체 법대교우를 결집할 수 있는 특출한 능력을 소유한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한 주선회(법65) 교우를 법대교우회 신입회장으로 추대하였고, 회장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결의하였음을 발표하였고, 참석 회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주선회(법65) 교우를 고대법대교우회 신입회장으로 의결하였다. 그리고 부회장, 감사, 이사 등의 임원 선임은 신입회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다. 제10회 『자랑스러운 고대법대인』으로 김기수(행57) 변호사(전 검찰총장)와 김중권(법59)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재형(법80) CJ그룹회장이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2009년도 상반기 영진교우들에 대한 수여안을 승인하고 2008년도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합격자들을 초청하여 선물을 증정하는 등 축하행사를 가졌으며, 즐거운 만찬의 시간을 가졌다.

□ 영진축하패 수여 대상 교우 명단 (2009년 상반기)

성명	학번	영진직책
박성도	법65	국가정보원 제2차장
오강현	법67	대한석유협회회장
윤종태	법67	대한펄프 대표이사 사장
소진세	행정70	롯데슈퍼사업본부 대표이사 사장
최영	행정72	강원랜드 사장
강희락	법72	경찰청장
안병옥	법72	국회 입법차장
신연성	법74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

□ 任員分擔金(年會費) 納入 計座

은행계좌	신한은행 140-008-438530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우회
분담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문, 자문역 : 500,000원/년 ○ 회장 : 3,000,000원/년 ○ 부회장, 감사 : 1,000,000원/년 ○ 이사 : 100,000원/년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우회

주소 : (137-885)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719-4 양진빌딩 303호

전화 : 02-3482-7011 팩스 : 02-3482-0071

※ 문의사항이나 주소 등 변경이 있으신 분은 총무이사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이사 이 현 규(법80)

전화 : 02-536-8100,

팩스 : 02-536-8132

이메일 : proslee7@naver.com

◆ 화제의 교우 ◆

장학금 반환운동 제창하는 박찬세 교우



2009년 2월 12일 목요일 박찬세(법55) 교우가 “재학시절 받았던 장학금을 후배들에게 돌려주러 왔다”며 모교 교우회를 찾아와 천만원을 쾌척했다. 박 교우는 “모교 재학시절 받았던 장학금 덕에 배울 수 있었던 자유, 정의, 진리의 가치는 모교 밖에서 반세기 넘는

삶을 지탱해준 뿌리가 됐다”며 “지금의 후배들에게 내가 받았던 축복을 돌려주고 싶다”고 동기를 밝혔다. 전 통일연수원(현 통일교육원) 원장이었던 박 교우는 자신의 장학금 기부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젊은 후배들에 대한 선배들의 책임을 강조하며 전 교우 차원의 ‘장학금 반환운동’을 제창하고 나섰다. 박 교우는 1967년故 현민 유진오 박사의 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 국회전문위원, 청와대 공보비서관 등을 거쳐 통일연수원장을 세 차례 역임하고 지난 1996년 퇴직하기까지 공직자로서 30여년을 살았다. 교우들 사이에서는 1960년 고대신문 편집국장 재임당시 4·18의거의 출발점이 된 시국선언문의 작성자로 유명하다. 박 교우의 선언문은 자유당의 독재를 거부하던 고대생들의 가슴을 울리며 교문 밖으로 뛰어나가게 했다. 알다시피 4·18은 4·19의 시초이다. 이를 지켜본故 조지훈 당시 국문과 교수는 ‘너들 마음을 우리가 안다’라는 시를 통해 앞장서서 행동한 후배들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선배로서의 미안함과 함께 표현했다. 조지훈 선생 추모비 건립 추진 위원이기도 했던 박 교우는 “조지훈 선생의 시가 당시 재학생들에게는 큰 힘이 됐다”며, “최근의 경제위기로 어려운 상황을 맞은 후배들에게도 선배들의 진심어린 응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교우는 2009년 4월 17일 모교 백

주년 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4.18의거 49주년 기념세미나’에서 ‘4월 혁명 반세기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다.

장학금으로 맺은 인연 오만영·이보람 교우



<사진설명 왼쪽부터 김영순, 이보람, 오만영 교우>

“선생님께서 저를 후원해주시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힘이 솟아나고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선생님의 말씀은 제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꿈을 이룰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화창한 봄 날씨가 두드러졌던 2009년 3월 29일 일요일, 선배 부부와 손녀뻘 후배가 서울 도곡동에 위치한 식당에서 만났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 장학금을 받고 장차 훌륭한 법조인이 되겠다고 다짐했던 후배가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선배를 다시 찾은 것이다. 이날 만남에서 이뤄진 대화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했고 훈훈한 정이 묻어났다. 바로 그 주인공은 교우회에서 모교 교우회에서 장학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오만영(법55)** 교우와 부인 **김영순(21고연)** 교우, 그리고 2009년 3월 1일 자로 대전지법 판사로 발령받은 **이보람(법01)** 교우다. 오만영 교우는 구두회 전 모교 교우회장 재임 시절 장학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대학가에 유일무이한 ‘개인명의 장학금’을 만든 일등 공신이다. 오 교우는 당시를 떠올리며 “우리 대학도 힘든 IMF 시기를 거치면서 장학기금이 안 모아졌는데 십시일반의 자세로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만든 것”이라며 “4명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300명에 육박하는 걸 보니 잘 정착된 것 같아서 흐뭇하다”고 말했다. 오 교우는 어릴 적 가정교사로 일하면서 힘들게 공부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힘이 닿는 데까지 모교 후배를 돕기로 결심했다. 지금도 한성 로타리클럽에서

장학위원장을 맡으며 교내외를 가리지 않고 본인의 굳은 뜻을 실천하고 있다. 오 교우부부는 한 학기에 각각 두 명씩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당시 본인 명의로 장학금을 지급했던 김영순 교우는 이 교우에게서 판사로 발령받았다는 전화를 받고 너무나 기뻐하며 그 순간을 떠올렸다. “위낙 다정 다감해서 친손녀 같아요. 바쁜 상황에서 연락해준 걸 생각하면 너무나 기특하죠.” 세 사람은 이보람 교우가 3학년이던 2003년 처음 인연을 맺게 되었고 편지와 전화 통화 등으로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은 덕분에 서로의 근황을 자세히 알고 있었다. 이 교우는 넉넉지 않은 가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재학 시절 1등을 놓치지 않았으며 사법고시 공부에 매진했다.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틈틈이 선배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이 교우는 “이제 막 발령을 받아 정신이 없지만 나중에 모교의 아름답고 훌륭한 전통을 후배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도록 분발하고 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 교우부부도 그 동안 이 교우가 보냈던 편지들을 보관하며 후배가 잘 되기를 기원해왔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지는 순간까지 오 교우는 후배를 위해 진심어린 당부를 잊지 않았다. 그는 “매사에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훌륭한 법조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더 좋은 소식을 많이 들려 달라”고 덕담을 건넸다.

◆ 교우 동정 ◆

대통령 직속기관인 미래기획위원회 산하 국민원로회 제1차 회의가 2009년 3월 12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렸다. 현승중 모교 이사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국민원로회에는 전 국회의원이면서 현재 자유민주민족회의 대표상임의장을 맡고 있는 **이철승**(38법) 교우, 코리아CC 명예회장이며 전 재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용만**(행정55) 교우, 1995년 제3회 백오사진문화상을 수상하며 사진작가로 활동 중인 **윤주영**(40정법)교우가 각각 의원으로 속해있다. 국가원로회는 국가발전에 기여한 각계 원로들의 식견과 경험을 활용하여 국정에 반영하고, 주요 국가정책 및 현안 등에 대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다.

2009년 2월 20일 동방대학원대학교에서 전 모

교 교우회장인 **김일두**(41정법) 교우가 한국사찰편역에 관한 연구논문으로 서예학전공의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 교우는 올해 87세로 명예 법학박사학위도 갖고 있다.

전 경남도지사, 대한체육회 고문, 교우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일홍**(법52) 교우가 친목과 화합을 목적으로 2009년 3월 16일 월요일 한양 컨트리클럽에서 골프모임을 주최했다.

남양저축은행 대표로 있는 **이두정**(행정55) 교우가 장학재단을 만들어 2003년부터 6년간 총 4억여 원을 학생들에게 후원했다. 이 교우는 “한 기업인이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기업인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라고 전했다.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겸임교수이며 희망제작소 부설 조례연구소 운영위원인 **전기성**(행정56) 교우가 조례연구소 소장으로 취임했다.

여수상의회는 2009년 3월 3일 상의 회의실에서 제20대 임시의원총회를 열어 제20대 여수상의회장으로 **김광현**(법59) 교우를 추대했다. 김 교우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기업사랑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사회 환원을 위해 법무장관을 지낸 **송정호**(법61) 교우가 재산기부추진위원회(가칭) 위원장에 내정됐다. 송 교우는 2007년 대선 때 한나라당 경선후보 후원회장을 맡은 바 있다.

최학래(법61) 교우가 김종배 기자 50년 기념집인 《大記者 김종배》 발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같은 이름의 책을 나남출판사에서 펴냈다. 나남출판사 대표이사인 **조상호**(법70) 교우도 이책의 발간위원이다.

손진상(법71) 교우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위촉됐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과 환경피해의 예방 및 해결을 담당한다. 또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간편한 절차와 적은 비용으로 해결해 주는 준사법기구이다.

전운기(행정72) 교우가 지난 30여년간 국가공무원으로 국민복리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8년 12월에 정부로부터 근정포장을 수여받았다. 전 교우는 노동부 산업 안전보건국 국장을 거쳐 현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제6대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대전지방변호사회는 2009년 1월 19일,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김형태(법73)** 교우를 선출했다. 김 교우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회장을 맡았다”며 “변호사들의 전문성을 위한 교육, 사회단체와의 교류 추진 등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라진구(행정73) 교우가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 박사1호로 기록됐다. 서울시립대는 2004년 9월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을 개설한 후 이번에 처음으로 박사를 배출했다. 라 교우는 서울시 감사관 등을 거쳐 현재 서울시 행정1부시장으로 재직중이다.

충북도 행정부지사인 **이종배(행정74)** 교우가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됐다. 이 교우는 옛 행자부 재정경제과장과 감사담당관, 충북도 기획관리실장, 청주시 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2009년 2월 2일 월요일 충청로 쌍차이 회관에서 열린 모교 77학번 동기회 정기총회 및 이취임식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에 재직 중인 **한상대(법77)** 교우가 동기회장으로 선임됐다. 한 회장은

“상부상조하는 풍토를 만들고 각 분야에 인적 네트워크를 결성해 협력체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장판사를 지낸 **김영혜(법78)** 교우가 서초동에 위치한 로펌의 대표로 새로이 자리를 옮겼다. 또한 김 교우는 최근 공직자 윤리위원회 윤리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정동민(법79) 교우가 서울동부지검차장에서 광주지검 차장으로 승진했다. 정 교우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합리적인 융통성으로 상하간 인화단결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는 평이다.

대한축구협회가 2009년 2월 18일 8개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확정하며 상별위원장에 **최장섭(법80)** 교우를 선임했다. 최 교우는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 1998년부터 협회 상별위원으로 일 해왔다.

모교 인천교우회는 서구, 계양구, 부평구, 남구에 이어서 남동구지회를 창립하기로 하고 지회에 **성기환(법82)** 교우를 선임했다. 인천교우회 남동구지회는 2009년 4월 23일 첫모임을 가졌다.

서울북부지검 차장으로 있던 **이득홍(법81)** 교우가 법무 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승진했다. 이 교우는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로 부하직원들에게 따뜻한 모습을 보여 조직내 신망이 높다.

2009년 1월 21일 **이욱(법82)** 교우가 서울 중앙지검 공판2부장검사에 발탁됐다. 이 교우는 사법연수원21기에서 최초로 서울 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임명되는 영광을 안았다.

2009년 2월 5일 목요일 교우회관 5층 회의실에서 열린 여자 교우회(회장=**나길자**, 법62)의 제42회 정기총회에 국회의원인 **정미경(법85)** 교우가 초청강사로 참여했다. 정 교우는 검사에서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자신의 인생이야기를 전했다.

◆ 영진 교우 ◆

국정원 제2차장 박성도 교우



(주)SK해운 감사를 맡고 있는 **박성도**(법65) 교우가 국내정보를 담당하는 국정원 2차장에 임명됐다. 박 교우는 SK에너지 상임고문, 국정원 실장, 국정원 지부장 등을 거쳤다.

◎ 약력

- 1974년 중앙정보부 입사
- 충북지부장
- 인천지부장
- 정보관단실장(국내정보)
- SK에너지 상임고문
- SK해운 감사
- 현 국정원 제2차장

대한석유협회 회장 오강현 교우



2009년 2월 24일 대한석유협회 18대 회장에 **오강현**(법67) 교우가 선임됐다. 오 교우는 행정고시 9회로 공직에 들어와 옛 산업자원부 차관보와 특허청장, 강원랜드 사장, 가스공사 사장 등을 지냈다.

◎ 약력

- 제14대 특허청 청장
- 제3대 한국기술거래소 사장
- 강원랜드 사장
- 한국가스공사 사장
- 예당에너지 사장
- 현 대한석유협회 회장

대한펄프 대표이사 윤종태 교우



윤종태(법67) 교우가 2009년 3월 10일 대한펄프 주주총회에서 신임대표이사에 선임됐다. 윤 교우는 76년 럭키사원으로 입사해 럭키금성 인사과장을 거쳤다. 이후 LG그룹 기획조정실 인사부장, GS리테일 인사총무 부문장, GS리

테일 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 약력

- LG그룹 기획조정실 인사부장
- LG유통 호텔사업소장
- LG유통 CVS영남사업부장 이사대우
- LG유통 상품·물류부문 상무

- LG유통 SM사업부장 상무
- LG유통 CVS사업부장 상무
- GS리테일 백화점 사업부장 / 인사총무 부문장(兼)
- 현 대한펄프 대표이사 사장

법무부 차관 이귀남 교우



이귀남(행정69) 교우가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다. 대구고검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이 교우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과公安부장 등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 내정자는 적극적이고 온화하며 집념이 강한 성품으로 부하직원들에게 신망이 두텁다는 평을 받고 있다.

◎ 약력

-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부장검사
-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실 사정비서관
-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 법무부 기획관리실 실장
- 대검찰청公安부 부장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부장
-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 현 법무부 차관

롯데슈퍼 대표이사 사장 소진세 교우



소진세(행정70) 교우가 롯데슈퍼 대표이사 사장을 맡게 됐다. 소진세 교우는 77년 롯데쇼핑에 입사해 30년 이상 롯데의 유통 부문에서 한 길을 걸어온 인물로 본점장, 마케팅부문장 등을 역임했으며, 롯데슈퍼 부사장을 거쳐 이번에 사장에 선임됐다.

◎ 약력

- 롯데쇼핑 상품본부장 상무이사
- 롯데쇼핑 상품본부장 전무
- 롯데쇼핑 마케팅본부장 전무
- 롯데미도파 대표이사
- 롯데쇼핑 슈퍼사업본부장 부사장
- 현 롯데슈퍼 대표이사 사장

강원랜드 사장 최영 교수



최영(행정70)교우가 2009년 3월 26일 강원랜드 신입사장에 선임됐다. 최 교우는 행정고시 20회 출신으로 서울시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최 교우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사무국 국장(부이사장)과 경영기획실장을 거쳐 산하 SH공사 사장을 역임했다.

◎ 약력

- 서울특별시청 서울대공원관리사무소 국장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부구청장
- 서울특별시청 문화관광국 국장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부구청장
- 서울특별시청 산업국 국장
- 서울특별시청 경영기획실 실장
- SH공사 사장
- 현 강원랜드(하이원리조트) 사장

경찰청장 강희락 교수



해양경찰청장이었던 강희락(법72) 교우가 신입 경찰청장에 취임했다. 경찰위원회는 2009년 2월 1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강 교우를 청와대에 제청했고, 2009년 3월 9일 강 교우는 경찰청장에 취임했다. 강 교우는 부산지방경찰청장, 경찰청 차장을 역임했다.

◎ 약력

- 제26회 사법고시 합격
- 서울시지방경찰청 수사부 형사과 과장
- 경찰청 공보관
- 경찰청 워싱턴 주재관 경무관
- 경찰청 기획정보심의관
- 경찰청 수사국 국장
- 대구지방경찰청 청장
- 부산지방경찰청 청장
- 경찰청 차장
- 제42대 해양경찰청 청장
- 현 경찰청 청장

국회 입법차장 안병욱 교수

2009년 1월 14일 입법차장(차관급)에 정보위원



회 수석전문위원직을 수행하던 안병욱(법72) 교우가 임명됐다. 부산고를 졸업한 안 교우는, 국회사무처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쳐, 건설교통위와 국회운영위 수석 전문위원을 지냈으며 입법고시 5회 출신이다.

◎ 약력

- 제5회 입법고시 합격
- 국회사무처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심의관
- 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 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 同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同 건설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同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현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행정안전부 제2차관 강병규 교수



행정안전부 제2차관으로 강병규(법73) 교우가 임명됐다. 강 교우는 내무부장관 비서관, 경상북도 경산시 부시장,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기획지원부장, 행정자치부 감사관,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행정자치부 정책홍보관리실장, 행정자치부지방행정 본부장,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 약력

- 제21회 행정고시 합격
- 국무총리의전비서실 비서관
- 경상북도 경산시 부시장
- 대통령비서실 정무 행정관
- 행정자치부 감사관
-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국 국장
-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 현 행정안전부 제2차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허준영 교수



전 경찰청장인 허준영(행정73) 교우가 이명박 대통령의 임명철차를 거쳐 2009년 3월 16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신입사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 약력

- 제14회 외무고시 합격
-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영양경찰서 서장
-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차장(경무관)
- 강원도지방경찰청 차장(경무관)
- 경찰청 경비교통국 교통심의회관
- 경찰청 중앙경찰학교 교장
- 강원도지방경찰청 청장
-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치안비서관
- 서울지방경찰청 청장
- 제12대 경찰청 청장
- 현 한국철도공사 사장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 신연성 교우



주요르단 대사를 역임한 신연성(법74) 교우가 2009년 2월 11일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에 취임했다. 신 교우는 외무고시 11회 출신으로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 심의회관과 동 국제경제국장, 주

OECD 본부대사 등을 역임했다.

◎ 약력

- 외교통상부 경제협력1과장
- 주러시아 대사관 참사관
- 주그리스 대사관 공사참사관
-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 심의회관
- 주요르단 대사관 대사
- 동북아역사재단 국제표기명칭대사
- 현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

국회 농림수산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지성배 교우



지성배(법74) 교우가 국회 농림수산물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에 2009년 1월 14일 임명됐다. 지 교우는 국회 법제실 법제 심의회관, 감시관, 산업자원위원회 전문위원,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지냈다.

◎ 약력

- 제6회 입법고시 합격
- 국회사무처 감사관
- 국회사무처 산업자원위원회 전문위원 이사관
- 국회사무처 이사관(한국무역협회 파견)
- 국회사무처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문위원
- 현 국회사무처 농림수산물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목영만 교우



행정안전부는 2009년 1월 27일 기획조정실장에 목영만(행정 78) 교우를 임명했다. 목 교우는 대전이 고향이고 행시 25회 출신이다. 서울시에서 정보화기획 담당관과 기획예산실 기획담당관을 역임했다. 또 환경국장, 맑은 서울추진 본부장, 한강사업본부장을 역임하며 서울시 환경발전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약력

- 제25회 행정고시 합격
- 서울시 정보화기획담당관
- 서울시 기획예산실 기획담당관
- 서울시 자치행정과 과장
- 서울시 정책기획관(3급)
- 서울시 환경국 국장
- 서울시 환경국 국장 지방이사관
- 서울시 맑은서울추진본부 본부장 제2정책보좌관
-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본부장 지방이사관
- 행정안전부 지방이사관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국장
- 현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실장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박영준 교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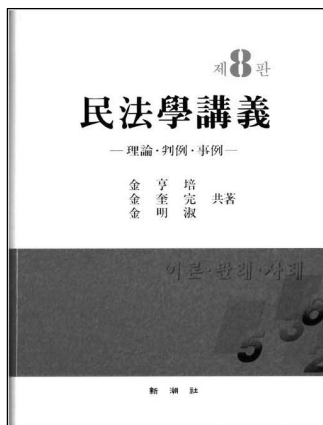
전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이었던 박영준(법80) 교우가 2009년 1월 19일 단행된 개각에서 총리실 국무차장에 발탁됐다. 박 교우는 “총리를 모시고 심부름 역할을 하는데 충실하겠다”며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내각 곳곳에 심는 일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 약력

-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 대통령실 기획조정비서관
- 제17대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총괄팀장
- 서울특별시장 정무보좌역
- 민선 3, 4기 서울특별시장 직무인수위원회 위원
- 대우그룹 기획조정실 전략팀장
- 한나라당 네트워크팀 팀장
- 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 교우 신간 ◆

- **민법학강의 -이론·판례·사례- (제8판) / 김형배(법53, 법과대학 명예교수), 김규완(법80, 법과대학 교수), 김명숙(법85, 법과대학 교수) 교우 공저**



기본사법인 민법을 체계정합성 아래 정치한 규범논리로 해설한 표준서로서 각광을 받은 김형배(법과대학 명예교수) 교우의 ‘민법학강의’가 제8판부터

는 학자로서 이론법학을 연마한 김규완(법과대학 교수) 교우와 판사로서 법학실무를 단련한 김명숙(법과대학 교수) 교우가 공저자로 가세함으로써 그 면모를 일신하였다. 이 저술은 이론과 판례 및 사례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면서 민법 전체의 구조를 종합적으로 서술하는 새로운 형태의 체계서이다. 민법의 복잡한 구조와 체계 및 학설을 간결하고 압축된 표현으로 설명하는 한편, 최근 법학교육과 사법시험 등의 출제경향에 부응하여 사례를 매개로 법률의 추상적 규정을 구체적으로 이해함에 있어서도 판례의 태도를 항시 접목시킴으로써 살아있는 민법의 현상과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민법의 제도 및 개별규정의 문제점과 쟁점을 정

확히 지적하여 독자들의 창의적 사고를 위한 여백을 두는 한편, 필요한 곳에서는 저자의 견해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설득력 있는 논증과 법적판단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제7판까지의 기본적인 틀과 줄기를 유지하였음에도 새로운 저자들의 참여로 적지 않은 부분이 수정·보완되었으며, 최근까지의 중요한 판례도 모두 반영되었다. [신조사 / 1995면]

- **특파원 리포트 - 이민희의 취재 현장 보고서 / 이민희(법60) 교우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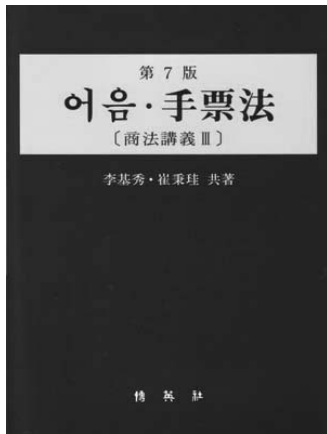


KBS문화사업단 및 KBS미디어 사장을 역임했고, 2008년 KBS 사장 후보에 오르기도 했으며 현재 사랑의 복지재단 상임이사로서 있는 이민희 교우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취재 현장 보고서를 펴냈다. 《특파원 리포트》는 1966년부터 40년여의 시간 동안 그가 민원기자, 도쿄특파원, 언론사 경영인, 언론학 교수 등 언론인으로서 치열한 여정을 걸어온 생생한 현장 기록이다. 저자가 한국 언론의 본격적인 형성 및 발전기를 온몸으로 겪어온 과정을 통해 한국 언론의 역사와 현주소를 반추해볼 수 있다. 그리고 많은 특종을 발굴하고 천황의 사죄를 촉구한 일 등은 생생한 취재 현장과 함께 이 교우의 기자정신을 잘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저자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이 책은 훌륭한 기자와 특파원

이 되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는 유익한 ‘기자되기’ 지침서가, 일반인들에게는 한국 언론의 역사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스컨텐츠 / 300면]

● **어음·수표법 [상법강의Ⅲ] 제7판 / 이기수(법65, 법과대학 교수·모교 총장), 최병규(법81) 교우 공저**



법학교육이 로스쿨제 도입으로 변화를 맞는 과도기에서도 어음·수표법은 그 법원리가 중요하고 따라서 새로운 체제하에서도 변호사시험 과목으로

중요하게 취급될 예정이다. 그 동안 어음·수표법 분야는 다른 분야보다도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작금의 경과를 보면 경제 및 사회 환경 변화가 매우 빠르며 어음·수표법 분야도 그 영향을 받고 있다. 이기수 고려대 총장과 최병규 건국대학교 법대 교수 공저의 ‘어음·수표법’은 법률과 법이론이 시의적절하게 이러한 환경변화를 뒷받침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 주로 수정·작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담보배서인의 의무와 권리부분을 개고하였다. 둘째, 이득상환청구권 부분의 내용을 조정하였다. 셋째, 그 동안 선고된 어음·수표법 분야의 판례를 반영하였다. 넷째, 그 동안 개고되거나 새로이 발간된 참고문헌의 변화를 반

영하였다. 다섯째, 그 밖에 발견된 논리적 오류나 오·탈자를 수정하였다.

[박영사 / 590면]

● **스페인 해상법-1737년부터 2006년까지 / 채이식(법67) 교우 저**



스페인은 세계 최초로 해상 제국을 건설한 국가이다. 1492년 콜럼버스가 미주 대륙을 발견한 이래 스페인은 미주와 필

리핀으로까지 진출하여 세계적인 해상 제국으로서 기틀을 마련했다. 여기에 필연적으로 해상법의 정비가 요구됐고 이로 인한 1737년 빌바오 상사칙령은 많은 해상법 학자들이 근대 스페인 해상법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스페인 해상법’은 빌바오 상사칙령을 비롯해 이 칙령을 승계한 1829년 스페인 상법, 1885년 스페인 상법, 2006년 항해에 관한 일반법의 입법 초안을 번역해 원문을 함께 실고 있다. 이 책은 채이식 법과대학 교수가 집필한 1681년 ‘프랑스 해사칙령’과 1807년 ‘나폴레옹 상법전 해상편’의 연장선상에서 집필한 것이다. 필자는 스페인 상법에 관심을 갖고 유사한 작업을 본서를

교우신간

통해 시도하였다. 스페인의 빌바오 상사척령은 원래 상법의 형태로 존재하였고 그 내용도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상법과 유사하여 상법의 연구에도 많은 시사점이 있다. 하지만 시간관계상 부득이 하게 해상법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발췌하여 번역을 하게 되었다. 저자인 채이식 교수는 모교 법과대학 졸업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 런던대학교에서 해상법을 공부해 한국인 최초의 영국변호사가 된 이력을 가지고 있다. 2006년엔 스페인 마드리드 까르로스 3세 대학에서 8개월동안 스페인 해상법을 연구하였다. 모교 법과대학장과 법무대학원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2005년 이래 현재까지 국제해사기구(IMO) 법률위원회 의장으로 세계 해사조약을 총괄하며 우리나라의 해상법을 이끌고 있는 학자이다.

[고려대학교 출판부 / 624면]

● 헌법학 (제4판) / 장영수(법78, 법과대학 교수) 교우 저

지난 1년 동안에도 헌법과 관련된 법령의 변화 및 새로운 판례의 축적이 많이 있었다. 비록 헌법은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지만, 헌법개정논의도 조금씩 활성화되는 분위기이고, 새 정부의 출범에 따른 법령의 정비도 헌법과 관련된 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법령의 개정이나 새로운 판



례로 인하여 변화된 부분을 반영하여 장영수 법과대학 교수의 헌법학 제4판이 출간되었다. 장영수 교수는 바뀐 부분들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변화된 부분이 헌법학의 근본 줄기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며, 이는 헌법학의 전체 체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전제될 경우에는 그야말로 미시적인 변화에 불과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헌법학의 경우에는 130개에 불과한 헌법조문의 암기로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헌법학이 다루는 문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 문제 해결의 방법을 체득하기를 권유하고 있다.

[홍문사 / 1342면]

● 가족법판례해설 / 신영호(법73, 법과대학 교수), 이은정(법83) 교우 외 10인 공저



‘가족법판례해설’은 한국의 가족법의 대표적인 판례와 비록 대표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의미가 깊은 판례, 그리고 최근에 나온 중요한 판례들을 망라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해설을 하였다. 신영호 모교 법과대학 교수, 이은정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포함한 12인의 가족법 전공학자들이

3년여를 준비한 끝에 강의와 연구의 결실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가족법판례해설’은 판례를 통해 가족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판례와 해설을 통해 가족법을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므로 가족법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실무 및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세창출판사 / 599면]

● 상법강의요론 (제8판) / 정찬형 법과대학 교수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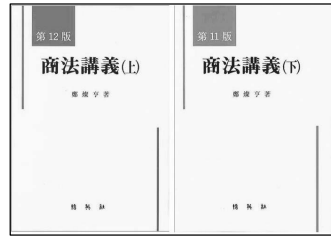


정찬형 법과대학 교수의 상법강의요론 제8판이 출간되었다. 제7판 출간 이후에 새로 나온 대법원판례를 반영하였고, 새로 나온

상업등기법, 상업등기규칙, 물류정책기본법 등을 반영하여 본문 및 인용을 수정하여 이번에 제8판을 출간하였다. 종래에 증권거래법에 규정되어 있던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이 개정된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나뉘어 규정됨으로써, 이번에 출간되는 제8판에서 이러한 내용도 반영하였다. [박영사 / 1330면]

● 상법강의 (上) 제12판, 상법강의 (下) 제11판 / 정찬형 법과대학 교수 저

정찬형 법과대학교수의 ‘상법강의’ 신판(상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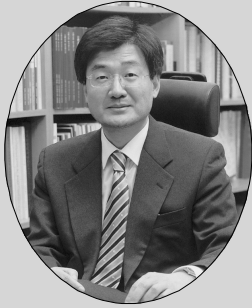


제12판, 하권 제11판)은 2008년~2009년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상법개정안을 참고자료로

부록 뒤(색인 앞)에 수록하여 최근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상법내용에 대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전 판 출간 이후에 새로 나온 대법원판례를 반영하고, 비송사건절차법에서 분리되어 ‘상업등기법’이 새로 제정되고 이에 따라 ‘상업등기규칙’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총칙편 중 상업등기에 관한 부분을 수정함은 물론 이에 따른 법령인용을 전부 수정하였다. 또한 종래의 증권거래법이 2009년 2월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되고 그 내용이 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상법의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에 분산되어 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법령인용을 전부수정 하였다. (上)권은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 ‘회사’로 구성되어 있고, (下)권은 제4편 ‘어음법·수표법’, 제5편 ‘보험’, 제6편 ‘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영사 / (上) 1409면, (下) 1249면]

법학교육의 국제화 소고



박노형(법77)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설을 신청하면서 많은 대학교들이 ‘국제화’를 중요한 방향으로 정하였고, 법학전문대학원을 개설하지 않은 일반 법과대학에게도 ‘국제화’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법학교육의 국제화가 ‘국제법’ 과목에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국제법은 그 태생적 특성상 국제화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법학교육의 국제화 논의에서 특별한 주목을 받을 필요는 없다.

법학교육의 국제화는 그 자체로 목적으로 볼 수 있지만, 수단의 관점에서 논의할 내용이 더 많을 것이다. 즉, 법학교육의 국제화를 통하여 무엇을 얻을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의 검토이다. 무엇보다도 법학교육의 국제화를 통하여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우수한 교육과 연구를 추구할 수 있다. (적어도 국내에서 고대 법학전문대학원이 가장 우수하다고 전제하면) 고대 법학전문대학원은 미국이나 유럽은 물론 일본이나 중국 등의 좋은 법과대학(원)과 법학의 교육이나 연구에 있어서 필적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그리고 어떻게 국제화를 추구해야 하는가? 교육의 국제화는 국제적인 수준으로 국내·외 사회에서 요구하는 법학교육을 하는 것이다.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는 말은 법학교육에서도 똑같이 중요하다. 즉, 법제도가 적용되는 현재는 물론 미래의 사회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한데, 예컨대 국가의 물리적 국경이 무너지고 있는 세계화의 특성은 법학교육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이 서로의 간극을 좁히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예컨대, 민상사 분야는 물론 지식재산권이나 형사 분야에서조차 조약의 비중

이 커지고 있다. 학생들 모두가 국제법의 모든 내용에 정통할 필요는 없지만, 조약법 등 최소한의 기본적 이해는 그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담당하게 될 민상사나 형사 등 국내법 실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세계화의 틀 속에서 조약법 등의 분야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현실적 필요가 있다. (변호사시험에는 소용이 없겠지만...) 이렇게 국제법과 국내법 소통의 중요성은 국내법의 다양한 분야들 사이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본교는 최근에 복수교수공동강의제도를 도입하였는데, 같은 주제에 대하여 달리 접근을 하는 교수 2-3명이 공동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예컨대, 의료 분야에서 민법과 형법은 물론 의학 전공 교수들이 함께 강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에서 교수들도 같은 대상을 놓고서 서로 다른 시각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학생들도 한 강의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다양한 내용을 공부할 수 있게 된다.

발전된 사회는 발전된 법제도를 가지고 있고, 그에 상응하는 발전된 법학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점에서 한국보다 앞서가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의 우수한 대학에서의 교육내용은 현재는 물론 가까운 미래에 우리에게 필요하게 될 것이다. 물론 그들의 교육내용을 그대로 베끼자는 것은 아니고, 한국이라는 특별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법학교육을 추구하는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에 보다 실용적인 법전문가의 양성이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한다면, 미국 등에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legal clinic’ 등의 실무교육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침 본교는 외국 대학과의 실질적인 교류를 위하여 ‘G-Class’라는 독특한 강의제도를 최근에 도입하였다. 예컨대, 미국 대학의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이나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고, 우리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그 교수의 강의를 수강하는 것이다. 우리 교수들은 이러한 강의를 관리하고 협조하는 것으로 책임시간을 인정받는

다. 이러한 강의방식을 통하여 우리 학생들은 비록 화면상이지만 외국의 교수로부터 직접 강의를 받게 되고, 우리 교수들은 외국의 교수와 공동으로 강의를 수행함으로써 얻는 것이 많을 것이다. 한국과의 시차를 고려하면, 미국의 서부, 호주 등의 대학이 좋을 것이다.

법학교육의 국제화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사회로 진출하는 학생들이 미국이나 유럽 등 우수한 법과대학(원) 출신들과 훌륭하게 경쟁할 수 있는가에서 확인될 수 있다. 국내의 모든 법학전문대학원 출신들이 미국이나 유럽의 우수한 그들과 경쟁할 필요는 없고 그럴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들은 그렇게 해야 한다. 이들은 자신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한국을 대표하여 국제적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고, 우리 사회가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들은 외국의 그들과 어려움 없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어야 하고, 영어는 필수적이다. 다행히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기준에 영어가 포함되어 있고, 영어실력이 출중한 학생들이 많이 있다. 문제는 이들의 영어실력이 3년 후에도 최소한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학생들 본인도 노력해야 할 것이지만, 학교도 이러한 노력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법학교육의 국제화가 진정으로 수행되려면, 외국인 학생과 교수가 고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하고 강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비중이 커질수록 외국인 학생이나 교수의 한국의 법제도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커질 것이다. 이 점에서 법학의 영어강의는 필연적이다. 외국인 학생이나 교수가 한국어를 습득하여 한국의 법제도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물론 현재 외국인 학생들이 많지 않은 시점에서 법학전문대학원에 영어강의를 많이 개설할 수는 없다. 영어강의를 통하여 우리 학생들이 국내법이 주류가 되고 있는 법학을 공

부하라고 요구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멀지 않은 미래에 영어강의가 꼭 필요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매학기 최소한의 영어강의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학전문대학원 2년차나 3년차에서 다양한 영어강의를 개설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교수들을 1-2주의 단기간에 초청하여 강의를 개설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영어강의를 통하여 영어실력이 향상될 수 있느냐에 관하여 오해를 하고 있다. 영어강의는 영어를 통하여 교육내용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어실력의 향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또한, 영어강의의 효율성이 낮다고 비판을 받는다. 처음에는 학생이나 교수 모두 어색할 수 있고 효율도 낮겠지만, 일종의 학습효과를 통하여 영어강의의 부담이 많이 줄게 될 것이다. 특히 국내법의 영어강의를 통하여 담당 교수는 해외에서 한국의 법제도를 소개하는 기회도 가질 수 있게 된다. 학생들도 영어강의를 통하여 '영어'의 부담을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법학교육의 국제화에는 위에서의 논의 이외의 다양한 목적과 방법이 개진될 수 있다. 중요한 사실은 일본은 물론 홍콩을 포함한 중국이나 싱가포르 등이 미국과 유럽의 우수한 대학들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점이다. 이들 아시아 대학들의 법학교육의 주된 내용이 그들의 국내법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이들이 법학교육의 국제화를 추구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국내에서 으뜸이 되기 위하여도 법학교육의 국제화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이 아니라 법학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과 이들 학생을 수용하게 될 우리 사회, 그리고 국제사회를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이다. 법학교육의 국제화는 거를 수 없는 우리의 과제이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우정보센터

교우님의 직장주소나 자택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고대법대교우정보센터 (전화:02-3290-1294, 팩스: 02-923-2991, E-mail : lawkorea@korea.ac.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의 동기회 주소록이나 직장별 주소록을 가지고 계신 분은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쇄물의 형태로 고대법대소식을 발간하는 것은 이번호가 마지막입니다.

앞으로는 전자출판의 형태로 발간하여 교우정보센터 홈페이지 (www.korealawschool.com)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로 받아보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성함, 학번 및 이메일주소를 교우정보센터 (lawkorea@korea.ac.kr)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대법대소식

제 54 호 (2009. 5)

발행인: 채이식 법과대학장 편집위원: 안효질 법과대교수 편집간사: 김종희, 심미량
『고대법대소식』제작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우회가 후원합니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우정보센터
(Homepage : <http://www.korealawschool.com>)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전화 : (02) 3290-1294

팩스 : (02) 923-2991

E-mail : lawkorea@korea.ac.kr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우회

137-885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719-4

양진빌딩 303호

전화 : (02)3482-7011

팩스 : (02)3482-0071